

農村女性의 農業生產 參與의 實態와 問題點*

金 周 淑

스웨덴 옵살라大 社會學科 博士課程

- I. 序 言
- II. 調查地域 選定 및 調查方法
- III. 應答者 夫婦의 特性과 應答家口의 社會經濟的 背景
- IV. 農村女性의 農業參與 分析
- V. 要約 및 結論

I. 序 言

에스터 보즈럽은 그의 책 「經濟發展에 있어서의 女性的役割(Woman's Role in Economic Development)」의 서두에서 세계의 여러 低開發國家에서 여성의 農業生產에 어떻게 참여하는가를 분석하고 있는데 그는 이 책에서 人口密度와 農業形態 등을 연관시켜 분석하면서 農業에서의 남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1) 移動式 農業이 시행되는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남자는 농사 일을 적게 하고 여자들이 많이 한다.

(2) 인구가 약간 많은 곳으로서 쟁기를 사용하는 農業方式의 지역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농사일을 더 많이 한다.

(3) 灌溉施設이 있고 집약적인 경작을 하는

지역에서는 남자나 여자는 다 같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많은 노동을 하여야 한다.

보즈럽의 이러한 분석은 우리 나라 農村女性의 生產活動 측면을 연구하는 데 일차적으로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 나라가 아시아 地域에 속해 있지만 오늘날의 우리 농촌이 灌溉施設을 갖추고, 작은 耕地面積에 많은 農業 인구가 매달려, 生產性을 높이기 위해 집약적인 경작을 해야 하는 구조적 여건 속에서 농촌의 남녀 모두 農家勞動에 필연적으로 많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음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 점은 우리 農家の 平均 耕地面積과 農村人口比率 등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우리의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농촌 여성의 農業參加를 증대시키고 있음이 지적될 수 있다. 高度資本主義 단계에 도달한 우리의 經濟構造 속에서 농산물 가격면에서 불리함을 감수하게 되는 小農들의 입장이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며, 이러한 상황하에서 농가의 남성들뿐 아니라 農業女性들의 노동 증가 현상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지적되는 것이다. 여기에 60年代 이후 지속적으로 工業優位의 產業化政策이 수행되어 오는 동안 농촌 인구의 移出, 특히 생산 연령층 남자의 都市集中 現象은 농촌 여성들에게 더 많은 農業생산 참여의 기회를 주고 있

* “韓國農村女性의 勞動生產에 관한 討論會”(農經研, FAO, 1982. 5. 7)에서 발표된 것임.

다. 그리하여 농업노동의 婦女化, 高齡化라는 현상이 제기되고 있다. 이웃 日本의 경우도 2차 大戰 때와 그 이후에 이유와 양상은 다를지언정 農業勞動이 부녀화되고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

우리 나라 여성의 농업생산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우선 勞動統計 자료에서 발견된다. 우리 나라의 1979년 農家와 非農家의 여성의 經濟活動參加率을 비교하면 농가 여성은 54.2%임에 비해 비농가 여성은 35.9%이었다. 농촌과 도시 여성의 就業率을 연령별로 구별하여 제시하고 있는 다른 자료에 의하면 농촌 여성의 취업률은 高年齡層에서도 높고 물론 도시의 고연령 층 여성보다 높다. 1976년에 실시된 농촌 부락 조사자료에서도 농촌 여성이 농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 품앗이, 샾일 등도 많이 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여성의 농업생산 참여의 증가 현상은 일단 농업에 참가하는 여성 개개인에게 있어서 뿐 아니라 사회적 次元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여성이 전통적인 女性役割로 규정되었던 消費生活 영역에서 벗어나 생산자의 입장으로 취함으로써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생산과 소비의 균형적인 生活方式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의미가 큰 것이다.

또 농촌여성이 농업생산에 참여하는 것은 經濟活動人口 증가라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성들이 대거 生產隊列에 참가하여 全體 經濟活動人口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날로 여성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농촌여성의 보편적 생산활동 현상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 한 變數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성 농업 참여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두 가지 점에서 면밀히

연구 검토가 요청된다.

첫째는 여성 농업 노동의 效率性내지 成果를 측정하는 문제로서, 여성의 농업생산 참여 즉 경제활동의 결과가 그가 속한 농가의 經濟向上, 줍게는 農業所得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농가경제 상황보고 및 농가의 負債統計를 대할 때 農家女性들의 점증하는 농업 참여가 농가소득 향상에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인상을 받게 된다.

둘째 점은, 役割과 地位의 관련 문제로서, 농촌 여성의 생산활동이라는 役割增大가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간 여성문제와 관련된 이론 중에서 상당 부분이 생산활동으로부터의 소외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약화시켜 온 要因이라고 지적된 바 있기 때문에 여성의 농업생산 참여와 농촌 여성의 地位向上과의 상관성이 주요한 研究課題로 제기되는 것이다.

본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이 두 가지 연구 과제를 추구해 보려는 데 있었다. 그러나 위의 問題點들은 일차적으로 우리 사회의 기본적 經濟構造의 분석과 또 기존 女性解放理論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며 더불어서 女性의 農業生產活動 자체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요구하게 된다. 이 가운데 본조사·연구는 여성 농업생산 측면만을 조사자료를 통해 고찰해 보는 것이며 위의 연구 과제는 실증적인 자료들이 더 많이 누적된 후에 그들 資料分析과 理論檢討를 동시에 해야 할 것으로 필자는 믿고 있다.

본조사에서는 농가의 耕地 규모, 專業·兼業 여부, 耕作形態, 賃貸借 농지규모, 農家負債 등 調查 家口의 경제적 상황을 검토하고, 여성의 농업참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II. 調査地域 選定 및 調査方法

조사지역으로는 서울과 부산 및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의 다섯 개 地域群으로 임의로 분류하였고 다시 이 다섯 개의 지역군에서 각각 1개군을 임의로 선택했다. 이때 郡 선택의 기준은 市 地域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고, 軍事施設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 郡에 특별한 開發計劃이 없으며 그 地域群의 전형적인 성격을 비교적 많이 가졌다고 판단되는 군을 임의로 선정한 후 각 군에서 1개면 1~2개 부락을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郡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부락으로는 반드시 일반 농촌을 택하는 것을 제 1의 원칙으로 하였다. 즉 完全平野 부락도 아니고 山間部落도 아니며 都市近郊도 아니고 高速道路 주변도 아닌 半平野・半山間의 농촌부락을 선택하도록 했다.

(2) 더욱기 特殊作物을 많이 하는 지역도 제외했고 軍部隊가 인근에 있는 지역, 기타 特殊狀況을 가진 지역을 제외했다. 그리고 과거에 새마을 운동 등으로 명성이 나 있는 부락도 제외하였다.

(3) 그리고 國道邊으로부터 5분 이상 걸어 들어가는 부락으로 선정했고 물론 面事務所나 기타 특수시설이 가까이에 있는 지역을 제외시켰다.

이상과 같은 原則하에 선정한 調査地域은 ①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장암리, ② 경북 고령군 쌍림면 산촌리와 하거리, ③ 전북 남원군 금지면 입암리 입동부락, ④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1구, ⑤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의 5개 지역

이다.

선정된 부락에서는 全家口를 대상으로 全數調查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응답자는 각 가구의 주부이었다. 그리고 응답자 외에도 그 지역에 사는 13세 이상의 모든 女性에 대해서도 몇 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農業參與 정도를 조사하였는데 이 조사 항목들은 응답자들에게 물어보았다. 조사는 198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두 팀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III. 應答者 夫婦의 特性과 應答家口의 社會經濟的 背景

1. 應答者 夫婦의 特性

본조사의 여성 응답자 570명의 家口主와의 관계를 보면 가구주의 아내가 가장 많아서 83.9%이고, 다음은 자신이 가구주로 되어 있는 경우 39명(6.8%), 다음은 가구주의 며느리 38명, 가구주의 어머니 13명, 할머니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의 연령은 각 연령층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表 1〉, 그중에서도 40대(35.1%), 30대(29.0%), 50대(20.7%)가 많다. 60대 이상의 응답 여성도 10.9%나 되고 있다. 한편 응답자들의 남편의 연령은 응답자보다 전반적으로 높다. 응답자들의 教育 정도는 매우 낮다. 응답자의 거의 절반(48.4%)에 이르는 부인들이 國民學校 출신이며 無學인 여성이 43.0%에 이르렀다. 中學校 출신이 6.5%이고 高等學校나 大學을 다닌 응답자는 전체의 1.6%에 지나지 않는다. 응답자 중 大學出身 여성은 단 1명에 불과했다. 남편들의 教育水準은 응답자들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12.5%로

表 1 應答者 夫婦의 特性

구분	응답자	부 인		남 편	
		수	%	수	%
연 령	~24	19	3.3	7	1.2
	25~29	40	7.0	32	5.6
	30~34	64	11.2	45	7.9
	35~39	67	11.8	52	9.1
	40~44	98	17.2	93	16.3
	45~49	102	17.9	103	18.1
	50~54	77	13.5	78	13.7
	55~59	41	7.2	58	10.2
	60이상	62	10.9	102	17.9
교 육 정 도	무 학	245	43.0	165	28.9
	한글 해득	3	0.5	7	1.2
	국민학교	276	48.4	249	43.7
	중학교	37	6.5	78	13.7
	고등학교	8	1.4	59	10.4
	대학	1	0.2	12	2.1
종 교 교 교	없음	376	66.0	428	75.1
	독교	82	14.4	55	9.6
	천주교	18	3.2	15	2.6
	불교	94	16.5	71	12.5
	기독교	0	0.0	1	0.2
계		570	100.0	570	100.0

서 응답자의 同比率 1.6%에 비해서는 10배 가까이 되고 있다. 응답자의 宗教狀況을 보면 無宗教라는 답변이 66%이다. 남편들의 무종교율은 이보다 더 높은 75.1%이다. 종교 상태는 조사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同居家口數는 1명으로 구성된 單獨家口에서부터 12명의 大家口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 중 最頻度數는 5명으로서 전체가구의 21.9%에 해당한다. 1명으로 구성된 단독가구는 대체로 노인 혼자서 살고 있는 경우이다. 570가구의 평균 동거 가구원수는 4.92명이다. 응답가구 중 절반이 넘는 331가구(58.1%)에는 他地에 나가 있는 非同居家口員이 있었고, 570가구 전체의 비동거 가구원의 평균을 계산해 보니 1.1명이다. 따라서 현재는 學業이나 就業 또는 기타 이유로 동거하지 않고 있더라도 응답자가 그들의 식구로 생각하는 가구원을 모두 합해 보면 평균 6.0명이 되

고 있다.

2. 家口의 經濟的 狀態

570가구의 성격은 專業農家가 78.4% 兼業農家가 14.4% 그리고 耕作地 없이 商業에 종사하거나 勞動 등으로 생활하는 농가가 7.2%였다. 가구의 耕地面積은 영세한 편으로 5단보 미만 경작가구가 26.8% 5단보에서 1정보 미만이 34%, 1정보에서 2정보 미만이 28.8%였고, 2정보 이상 경작하는 가구는 3.2%에 지나지 않았다. 전업농가의 경작지가 전반적으로, 겸업농가의 경작지보다 규모가 커졌다. 그리고 응답가구의 所有土地는 경작지 규모보다 영세하여 토지없는 가구가 17.4%에 이른다. 응답가구 中 完全地主는 11가구(1.9%)이고 自作農은 55.4%이며 自小作이 16.7%, 小自作이 8.6%, 그리고 純小作이 12.1%이다. 경작지 규모가 극히 영세하거나 혹은 2정보 이상의 大農에서는 소작하는 율이 낮고 대신 小農과 中農層에서 소작짓는 비율도 높으며 소작짓는 토지 규모도 크다. 즉 소농과 중농층의 경작지는 自己土地와 小作地를 합한 규모인 셈이다.

응답가구의 經濟狀態는 매우 열악하여 그들이 지고 있는 빚의 額數로서 확인된다. 私債와 公共機關의 빚을 합해 보면 전혀 빚을 안진 가구는 19.1%이며, 100만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가구가 35.2%에 이른다. 570가구의 부채의 평균 액수를 계산했는데 平均私債額은 339,825원이었고 공공기관의 빚 平均額數는 343,247원이었다. 이 두 가지를 합한 액수는 683,072원으로서 응답가구의 平均負債額은 이처럼 많다.

IV. 女性的 農業參與 分析

1. 女性이 하는 農事 일

먼저 지난 1년간 논에 재배한 作物에 대해서 물었는데 5개 부락에서 벼, 보리, 밀쌀, 마늘, 떨기가 전부이었다. 밭에 재배한 작물은 그 종류가 훨씬 다양하다. 5개 부락에서 밭 작물로 많이 나타난 종류를 보면 여주군 장암리에서는 고추, 깨, 콩의 순으로 지적되었고 연기군 양화리에서는 콩, 고추, 깨의 순이며, 고령군의 신촌과 하거리에서는 콩, 깨, 고추, 고구마의 순으로 지적되었다. 평창군 종부리의 경우는 고추, 수수, 깨, 콩, 감자의 순이었고, 남원군 임동부락은 콩, 깨, 고추, 고구마 등이 많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作物을 재배하는 데 새로운 技術을 사용한 가구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特殊施設이나 기술에 대해 농촌 여성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나를 조사해 보려는 조사 목적은 달성할 수 없었으나 밭작물에 다양한 작물이 열거되어 영세한 재배가 이루어지는 점과 또 전통적으로 밭작물은 주로 여자들이 재배해 온 점 등을 미루어 보아 農家女性의 농업노동 참여의 過重性을 말해 주는 자료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논농사나 밭농사에서 여성들이 하는 농사일 종류를 조사해 보려고 했다. 먼저 논농사부터 검토해 보기로 한다. <표 2>에 나타나 있듯이 논농사에서는 전반적으로 남편의 역할이 크고 부인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작다. 논에 肥料를 주거나 農藥을 살포하는 일은 남편 혼자 한다는 대답이 44.6%와 56.3%로서 논농사에서

表 2 農事은 누가 하나?

單位 : %

	남편 혼자	부인 혼자	부부 같이	기타 가족*	풀앗 이	풀을 사서	비 해당	합 계
(논)								
못자리작업	28.6	3.5	18.6	14.9	3.0	17.4	14.0	100.0 (570)
도심기	2.8	2.1	13.9	10.2	28.1	28.9	14.0	100.0 (570)
김김매기	13.9	4.9	14.4	11.2	1.9	17.9	45.8	100.0 (570)
농약 살포	44.6	3.5	8.9	12.0	1.2	15.4	14.4	100.0 (570)
시비	56.3	6.8	6.5	11.1	0.0	4.9	14.4	100.0 (570)
벼베기	8.4	3.3	23.9	17.3	6.5	25.6	14.9	100.0 (570)
타작	6.7	1.4	12.6	11.4	3.7	49.1	15.1	100.0 (570)
(밭)								
밭갈이	53.9	3.7	6.5	8.9	0.4	14.0	22.7	100.0 (570)
씨뿌리기	19.5	19.8	20.9	13.0	0.5	3.7	23.7	100.0 (570)
김매기	2.5	31.8	21.1	15.2	1.9	4.0	23.5	100.0 (570)
이식하기	3.0	28.9	23.5	13.5	1.4	4.2	25.5	100.0 (570)
농약 살포	41.4	10.7	8.1	10.4	0.2	3.0	26.3	100.0 (570)
시비	33.5	17.5	13.7	10.9	0.2	1.2	23.0	100.0 (570)
수확	3.9	16.5	31.1	18.8	0.5	6.1	23.2	100.0 (570)
타작	4.4	16.5	27.4	20.3	0.4	6.1	25.0	100.0 (570)

* 기타 가족은 가족전체 포함

는 남편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못자리 작업 역시 28.6%가 남편 혼자 해낸다고 응답했다. 논농사에서 부인 혼자 하는 비율은 모든 作業段階에서 매우 낮다. 그러나 못자리 작업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심기, 김매기, 농약 살포, 시비, 벼베기, 타작 등 모든 논농사를 부인 혼자 해낸다고 대답한 경우도 그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있다. 논농사에서 주로 부부가 같이 일한다는 대답도 각 일의 단계마다 높다. 풀앗이나 풀을 사서 주로 해내는 일로는 벼타작, 모심기, 벼베기 등의 일이다.

밭농사는 논농사와 상황이 약간 다르다. 밭갈이는 남편 혼자하거나 풀을 사서 하는 비율이 높다. 씨뿌리기는 부부 같이하거나 부인 혼자, 혹은 남편 혼자서 한다. 그러나 김매기는 가장 중요한 女性的役割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1.8%가 김매기는 부인 혼자한다고 대답하고 있고, 夫婦가 같이 하는 비율은 21.1%이며, 기타 가족이 하는 율도 15.2%로 높다. 이식하

기도 부인 혼자하거나 혹은 부부가 같이 하는 일로 나타났다.

밭에 農藥을 뿌리는 일은 남편 혼자 한다는 비율이 41.4%로 높다. 농약을 주로 부인 혼자서 살포한다는 대답도 10.7%나 된다. 밭에 肥料를 주는 일도 역시 남편이 가장 많이 한다. 부인 혼자서 밭에 비료를 주는 율은 부인 혼자서 논에 비료를 주는 율보다 훨씬 높다. 밭작물의 수확이나 타작은 일의 성격상 부인의 중요한 일인 듯하다. 수확이나 타작을 남편 혼자 하는 율은 극히 낮다.

2. 農事일 하는 程度

먼저 응답자들이 農事일을 얼마나 하는지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응답한 부인 570명 중에서 7.4%만이 農事일을 거의 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밖의 전부는 農事일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사철 내내 農事일을 한다는 응답자가 39.8%에 이르며 45.4%는 農事일에만 계속 일한다고 했다. 지역적으로 응답자들이 農事일하는 양은 차이가 있는데 남원 입동부락의 경우 사철 내내 일한다는 비율이 40.4%로서 가장 높은 반면 이 부락에서는 農事일을 거의 안한다는 응답자는 1.9%밖에 되지 않는다.

다음은 570가구에서 조사 당시 동거하고 있는 13세 이상의 전체 여성 1,048명의 農事일 하는 양을 검토하여 보자. 1,048명 중에는 물론 응답

한 부인은 물론 현재 學校에 재학중인 학생들과 연령이 매우 높은 할머니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1,048명 중 23.2%는 거의 農事 일을 안한다고 응답하고, 약 1/4인 25.9%가 사철 내내 農事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農事일에만 한다는 응답은 18.7%이고, 필요할 때만 하고 있다는 응답은 31.7%이다. 사철 내내 農事일을 한다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남원의 입동부락의 37.8%이며 다음이 고령군 신촌 하거리의 32.4%이다.

農村女性들은 그가 속한 가정의 생활 정도, 경지면적, 농가의 성격 그리고 그들의 연령 등 어여한 개인적 또는 사회적 特性보다도 그들이 農村女性이라는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農事일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變數가 되고 있는 듯하다. 이것은 농촌 여성의 연령별 農事일하는 정도, 농가 성격별 農事일하는 정도, 경지규모별 農事일하는 정도 그리고 생활 정도별 農事일하는 정도의 몇 개의 表를 검토해 보면 나타난다 <표 4, 5, 6, 7>.

<표 4>의 연령별 農事일 하는 양에서 보듯이 24세 미만의 젊은 未婚層과 70세 이상의 老年女性들에게서는 農事일을 안한다는 비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확실히 높다. 즉 農事일을 안한다는 비율이 24세 미만에서는 48.2%였으나 노동력이 강한 25~59세 층에서는 6.9%, 60~69세 층은 21.6%, 그리고 70세 이상층은 47.1%로 나타났다. 즉 아주 젊은 여성층과 70이 넘은 노년 여성층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여성들이 農事일을 안하고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젊은 여성이나 70세 이상의 노년 여성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약 절반이 農事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25~29세의 활동적인 연령층에서는 단지 6.9%를 제외한 全女性이 農事일을 한다. 충격적인

表 3 農事일은 얼마나 하나?

單位: %

	여주	연기	남원	고령	평창	합 계
농事일을 거의 안함	6.4	14.4	1.9	3.8	8.0	7.4 (42)
사철내내 農事일 함	22.9	38.8	60.4	51.0	27.7	39.8 (227)
농事일에만 계속 일 함	62.4	37.4	34.9	39.4	54.5	45.4 (259)
필요할 때에만 가끔일 함	8.3	9.4	2.8	5.8	9.8	7.4 (42)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0 (570)
()안은 응답자 수.	(109)	(139)	(106)	(104)	(112)	

表 4 연령별 농사일 하는 정도

单位: 명 (%)

	~24세 이상	25~59세	60~69세	70세 이상	합 계
거의 안함	137 (48.2)	38 (6.9)	27 (21.6)	40 (47.1)	242
사철 내내 함	6 (2.1)	228 (41.2)	27 (21.6)	10 (11.8)	271
농사철에만 계속 일함	24 (8.4)	240 (43.3)	53 (42.4)	15 (17.6)	332
필요할 때에만 계속 일함	115 (40.5)	48 (8.7)	17 (13.6)	16 (17.8)	196
무 응답	2 (0.8)		1 (0.8)	4 (4.7)	7
합 계	284 (100.0)	554 (100.0)	125 (100.0)	85 (100.0)	1,048

表 5 농가 성격별 농사일 하는 정도

单位: 명 (%)

	비 경 작	전 업	겸업(직장)	겸업(노동)	겸업(직장+노동)	합 계
거의 안함	33 (57.9)	177 (21.4)	9 (14.5)	22 (23.4)	1 (33.3)	242
사철내내 일함	2 (3.5)	238 (28.6)	11 (17.7)	20 (21.3)	—	271
농사철에만 함	9 (15.8)	264 (31.7)	30 (48.4)	28 (29.8)	1 (33.3)	332
필요할 때에만 함	13 (22.8)	146 (17.5)	12 (19.4)	24 (25.5)	1 (33.3)	196
무 응답	—	7 (0.8)	—	—	—	7
합 계	57 (100.0)	882 (100.0)	62 (100.0)	94 (100.0)	3 (100.0)	1,048

表 6 경지 규모별 농사일 하는 정도

单位: 명 (%)

	비 경 작	~1,500	1,500~3,000	3,000~6,000	6,000 이상	합 계
거의 안함	33 (57.6)	56 (23.3)	74 (20.6)	73 (20.9)	6 (14.0)	242
사철내내 함	2 (3.5)	52 (21.7)	110 (30.6)	99 (28.4)	8 (18.6)	271
농사철에만 함	9 (15.8)	102 (42.5)	97 (27.0)	107 (30.7)	7 (39.5)	332
필요할 때에만 함	13 (22.8)	30 (12.5)	78 (21.7)	64 (18.3)	11 (25.6)	196
무 응답	—	—	—	6 (1.7)	1 (2.3)	7
합 계	57 (100.0)	240 (100.0)	359 (100.0)	349 (100.0)	43 (100.0)	1,048

表 7 생활 정도별 농사일 하는 정도

单位: 명 (%)

	상	중	하	무 응답	합 계
거의 안함	56 (21.7)	68 (23.5)	116 (23.6)	2	242
사철내내 함	62 (24.0)	67 (23.2)	142 (28.6)	—	272
농사철에만 함	83 (32.1)	98 (33.9)	148 (29.8)	3	332
필요할 때에만 함	56 (21.7)	33 (18.3)	87 (17.5)	—	196
무 응답	1 (0.4)	3 (1.0)	3 (0.6)	—	7
합 계	258 (100.0)	289 (100.0)	496 (100.0)	5	1,048

사실은 5개 부락의 70세 이상의 여성 85명 중에 서 10명 (11.8%)은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철내내 농사일을 하고 있다고 대답한 점이다.

70세 이상의 여성 중 17.6%는 농사철에만 계속 일하고 18.8%는 필요한 때에만 일한다고 대답하고 있어 고령층 여성의 어느 정도 農業勞動

을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농촌에 사는 여성은 그가 속한 가정에 耕作地가 없는 경우 즉 자기 집은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도 농사일을 하고 있다. 비경작 가구에 속한 57명의 여성 중 33명은 농사일을 안한다고 대답했으나, 나머지 (42.1%)는 많던 적던

농사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그들은 품삯 일을 할 것이 틀림없다. 專業農家 여성들은 兼業農家 여성보다 사철 내내 농사일 하는 울이 높다. 경지규모와 관련지어 볼 때(표 6) 경작지가 적은 농가에 속한 여성일수록 농사일을 거의 안한다는 여성의 비율이 높다. 1,500평 미만을 경작하는 가구에 속한 여성 중에서는 23.3%가 농사일을 거의 안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6,000평 이상을 경작하는 가구에 속한 여성 중에서는 거의 농사일을 안하는 여성은 14%뿐이다. 耕地規模와 관련해서 특기할 일은 1,500~3,000평 미만의 小農 계층에 속하는 여성 중 사철 내내 일한다는 여성 비율이 30.6%로서 다른 층들 보다 비율이 높다. 경작지가 3,000~6,000평 규모의 中農 층 농가에 속하는 여성 중에서도 사철 내내 농사일하는 女性比率이 28.4%이다.

여성들이 속한 가구의 생활 정도별로 농사일하는 정도를 보면 (表 7) 계층별로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단지 하류층에 속한 女性集團에서 농사일을 안한다는 비율이 타집단 여성의 비율보다 약간 높고, 그런가 하면 사철 내내 일한다는 비율도 中·上流 集團 여성들의 비율

보다 약간 높다.

3. 農業勞動 形態

다음은 농촌 여성들의 농사일을 형태로 세분해 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표 8)에서 보면 응답자 570명 중 34%는 자기집 농사일도 하고 부락일도 하고 삽 일도 하는 여성이다. 자기집 농사일과 부락일만 하는 응답자는 32.6%이다. 다시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여 각각의 일에 여성들이 참여하는 정도를 百分率로 내 본다면 응답자 중 88.6%는 자기집 농사일을 하며, 72.1%는 부락일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응답자의 43.5%는 삽 일을 하고 있고 직장일 하는 응답자는 1% 미만이다. 농사일이나 삽일, 부락일 그리고 직장일 등 어느 것도 안하는 응답자가 5.8%이다.

응답자를 포함하여서 13세 이상의 同居女性 1,048명에 대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1,048명 중 69.2%는 자기집 농사일을 하고 있고, 44.4%의 여성은 부락일을 하였으며 삽 일을 하는 여성도 27.1%로 나타났다. 농사일, 삽일, 직장일, 부락일 등을 전혀 안하는 비

表 8 응답자의 하는 일(농사일, 부락일, 삽일, 직장 등)

單位 : % (명)

	여 주	연 기	남 원	고 령	평 창	전 체
전혀 안함	5.5	10.8	1.9	3.8	5.4	5.8 (33)
자기집 농사일만	15.6	18.7	8.5	12.5	21.4	15.6 (89)
부락일만	0.9	2.2	0.9	2.9	1.8	1.8 (10)
삽일만	0.0	0.0	0.0	0.0	0.9	0.2 (1)
직장일만	0.0	0.7	0.0	0.0	0.0	0.2 (1)
자기집 농사+부락일	22.0	39.6	37.7	38.5	24.1	32.6 (186)
자기집 농사+삽 일	15.6	0.7	1.9	1.9	9.8	5.8 (33)
자기집 농사+직장일	0.9	0.0	0.0	0.0	0.0	0.2 (1)
부락일+삽일	2.8	3.6	0.9	2.9	5.4	3.2 (18)
부락일+직장일	0.0	0.0	0.0	0.0	0.9	0.2 (1)
자기집 농사+부락일+삽일	34.9	23.0	48.1	37.5	30.4	34.0 (194)
자기집 농사+부락일+삽일+직장일	1.8	0.0	0.0	0.0	0.0	0.4 (2)
무 응답	0.0	0.7	0.0	0.0	0.0	0.2 (1)
합 계	100.0 (109)	100.0 (139)	100.0 (106)	100.0 (104)	100.0 (112)	100.0 (570)

表 9 응답자와 13세 이상 同居女性의 하는 일 종합
(1) 응답자

	수(명)	%
전혀 안함	33	5.8
자기집 농사일함	505	88.6
부락 일함	411	72.1
삯일 함	248	43.5
직장 일함	5	0.9
N=570		

(2) 13세 이상 동거여성

	수(명)	%
전혀 안함	261	24.9
자기집 농사일함	725	69.2
부락 일함	465	44.4
삯일 함	284	27.1
직장 일함	18	1.7
N=1,048		

表 10 13세 이상 동거 여성의 하는 일

	수(명)	%
전혀 안함	261	24.9
자기집 농사일만	252	24.0
부락일만	15	1.4
삯 일 만	4	0.4
직장일만	11	1.0
자기집 농사+부락일	13	20.3
자기집 농사+삯일	45	4.3
자기집 농사+직장일	3	0.3
부락일+삯일	20	1.9
부락일+직장일	2	0.2
자기집 농사+부락일+삯일	13	20.3
자기집 농사+부락일+삯일+직장일	2	0.2
무 응답	7	0.7
합 계	1,048	100.0

율이 24.9%에 이르고 있다.

4. 勞動時間과 勞動量 評價

農業勞動에 대하여 勞動時間과 労動量을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더우기 여성의 경우에 농업노동에 투하하는 시간을 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農業勞動과 家事勞動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번 조사에서 정확한 노동시간을 측정하지 못했고 단지 農

表 11 기상 시간

	농번기	보통 때	겨울 농한기
4시 이전	29.6	6.3	4.4
4시 ~4시 30	14.4	3.3	1.4
4시 30~5시	45.6	50.5	17.4
5시 00~5시 30	4.2	16.0	4.4
5시 30~6시	4.7	20.7	26.8
6시 00~6시 30	0.0	1.2	3.7
6시 30~7시	0.4	0.9	36.1
7시 이후	0.5	0.5	5.3
무 응답	0.5	0.5	0.5
합 계 (응답자수)	100.0 (570)	100.0 (570)	100.0 (570)

表 12 취침 시간

	농번기	보통 때	겨울 농한기
8시 이전	1.2	1.2	3.3
8시 ~9시	14.6	21.6	17.4
9시 ~9시 30	0.5	1.9	0.5
9시 30~10시	32.6	47.0	42.6
10시 ~10시 30	1.4	0.9	1.2
10시 30~11시	24.6	20.7	19.8
11시 ~11시 30	1.4	0.4	0.2
11시 30~12시	20.2	5.8	14.0
12시 이후	3.0	0.0	0.2
무 응답	0.5	0.5	0.7
합 계 (응답자수)	100.0 (570)	100.0 (570)	100.0 (570)

繁殖期와 보통 때 그리고 겨울 농한기 때 등 세時期로 나누어서 응답자들이 몇 시에 기상하고 몇 시에 취침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이 자료로서 간접적으로 농촌여성들의 노동시간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起床時間부터 보면 <표 11>에서처럼 농번기에는 새벽 4시 이전에 기상한다는 응답자가 29.6%나 되고 있으며, 5시까지 기상하는 응답자를 모두 합하면 89.6%에 이르고, 아침 6시경에는 거의 전부가 기상한다고 대답하고 있다. 보통 때에도 5시까지는 60.1%가 기상한다. 겨울農閑期에는 기상시간이 이보다 늦어지고 있다.

취침시간은 계절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농번기에는 10시 이전에 취침한다는 응답자는 48.9%이고,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가 27.4%, 그리

고 11시 30분 이후 취침한다는 응답자는 23.2%이다. 보통 때나 겨울 농한기의 취침시간은 이보다 많이 이르다(표 12).

또한 女性들의 農事일은 전에 비해 더욱 많아졌다는 것이 응답자들의 대답이다. “아주머니 생활에 여자들이 農事일을 하는 양이 전해 비하여 같았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하고 물어 본 결과 줄어들었다는 대답은 14.0%에 지나지 않았으며, 전과 거의 같다는 대답이 12.5%, 약간 많아졌다는 대답이 12.5%, 훨씬 많아졌다는 대답이 58.6%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약간 혹은 훨씬 많아졌다고 응답한 부인에게 다시 이렇게 많아진 農事일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많아졌는가를 재차 물었을 때 2/3 이상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많아졌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570명 중에서 44.0%는 여자들의 農事일이 훨씬 많아졌고 이것은 견디기 힘들 정도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응답자의 14.2%는 훨씬 많아지길 했으나 견딜 만하다고 대답하고 있다.

응답자 가구의 경작지 규모에 따라 응답자의 반응은 차이가 난다. 非耕作이거나 耕作地가 작은 가구의 응답자일수록 여자들의 農事일은 전과 같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경작지가 큰 가구들보다 약간 높다. 그리고 경작지가 커질수록 여자들의 農事일이 전에 비해 많아졌다고 답하는 비율이 높다. 이와 같은 대

답은 우리의 農業이 雇傭勞動을 적게 사용하고 주로 家族勞作의 農業을 운영하고 있음을 암시해 준다(표 13).

5. 農產物 販賣와 女性

지금까지 農촌여성이 하고 있는 農事의 종류 및 일하는 정도를 살펴보았다. 즉 農業從事者の 입장에서 農業生產에 참여하는 측면을 고찰한 것이다. 또 다른 측면으로서 즉 農產物流通過程에서의 여성의 참여 및 역할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농촌여성들이 農산물의 판매 및 유통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나라 農촌의 流通構造上 극히 한정되어 있다. 農촌 남자들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미 앞에서 나타났듯이 農村家口 중 企業農 또는 大農은 극히 적고 自家消費에 요구되는 곡식이나 채소를 소규모로 다양하게 재배하기 때문에 商品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農산물은 극히 한정되어 있고 주로 쌀뿐이다. 그리고 다양하게 재배하고 있는 밭작물 중에서도 商品化하는 작물은 고추, 콩, 깨, 마늘 등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벼는 정부에 의한 收買方法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추수기에는 각 농가가 판매문제를 개별적으로 취급할 필요가 거의 없을 정도이다. 따라서 정부 수매 후의 벼나 쌀 혹은 다른 農산물의 自家消費 외의 여분의 農산물의 판매를 각 농가

表 13 여자들의 農事일이 전에 비해 어떤가? (경작지 규모별)

單位: 명 (%)

	비 경 작	~1,500	1,500~3,000	3,000~4,000	4,500 이상	합 계
전과 거의 같다	5 (12.2)	25 (16.3)	24 (12.4)	13 (11.3)	4 (6.0)	71
줄어 들었다	7 (17.1)	24 (15.7)	29 (14.9)	10 (8.7)	10 (14.9)	80
약간 많아졌다	6 (14.6)	17 (11.1)	25 (12.9)	15 (13.0)	8 (11.9)	71
훨씬 많아졌다	17 (41.5)	85 (55.6)	10 (56.7)	77 (67.0)	45 (69.1)	334
무 응답	6 (14.6)	2 (1.3)	6 (3.1)			14
합 계	41 (100.0)	153 (100.0)	194 (100.0)	115 (100.0)	67 (100.0)	570

表 14 지난 1년간 농산물을 판 경험이 있는 판 곳
單位 : %

	여주	연기	남원	고령	평창	전체 (응답자수)
판 일이 없다	40.4	85.7	53.8	61.6	62.9	58.2(332)
판 일이 있다	57.8	12.9	46.2	38.4	57.1	41.1(234)
시장	6.7	8.0	33.0	29.8	52.7	30.9(176)
가게	0.0	0.7	0.0	0.0	0.0	0.2 (1)
일반가정	0.0	0.0	0.0	1.0	0.0	0.2 (1)
농협	2.8	2.1	9.4	3.8	0.9	3.7 (21)
집 앞에서	17.4	2.1	1.9	1.0	1.8	4.7 (27)
시장+농협	0.9	0.0	1.9	2.9	1.8	1.4 (8)
무용당	8.8	1.4	0.0	0.0	0.0	0.7 (4)
계 (응답자수)	100.0 (109)	100.0 (139)	100.0 (106)	100.0 (104)	100.0 (112)	100.0 (570)

가하게 된다. 응답자 중에서 지난 1년간 농산물을 판 경험이 있는자는 <표14>에서 처럼 41.1%이다.

여성들이 농산물을 내다 판 장소는 市場이 단연 으뜸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집앞에서 판 경우이고, 그 다음 순위는 農協을 통해서였다. 결국 조사된 다섯 개 부락이 한결같이 市場으로부터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농산물을 가지고 市場에까지 내다가 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13세 이상의 同居女性 1,048명을 상대로 그들의 연령, 가구의 경지면적, 그리고 생활 정도별로 지난 1년간의 농산물 판매 경험 유무를 분석해 보았다 <표15>.

우선 여성의 연령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40대와 50대 여성 중에서 농산물 판매 경험율이 높다. 그러나 이보다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60대 이상의 경험율도 17.6%나 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70대 이상의 여성 중에서도 7.1%는 지난 1년간 농산물을 판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농촌 여성들이 연령에 크게 제한을 받지 않고 農業從事者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었던 것과 같이 농산물 판매에서도 참여하는 여성의 연령 폭이 넓은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여성의 농산물 판매 경

表 15 여성 연령별, 경지 규모별, 생활 정도별, 농산물 판매 여부*
單位 : %

	전혀 판매한 적이 없다	판매했다	응답자수 (1,048명)
여성연령별	~29세	95.3	4.7
	30~39세	60.6	39.4
	40~49세	54.4	45.6
	50~59세	55.5	44.5
	60~69세	82.4	17.6
	70세 이상	92.9	7.1
경지규모별	비경작	94.6	5.4
	~900평	77.4	22.6
	900~1,500평	76.3	23.7
	1,000~3,000평	75.3	24.7
	3,000~6,000평	71.5	28.5
	6,000평 이상	66.7	33.3
생활정도별	상	74.4	25.6
	중	74.0	26.0
	하	76.0	24.0

*무응답은 제외했음.

험을 그들 가구의 경지면적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경지면적이 클수록 판매의 參與度가 높음을 볼 수 있다. 또 다시 生活程度와 비교해 보면 下流보다는 上流와 中流의 농산물 판매 경험율이 약간 높다. 조사된 농촌지역에서 경지면적의 넓이와 생활 수준의 높이가 정비례하였던 만큼 이 결과는 당연한 것이다. 결국 이 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해석은 경지면적이 크고 따라서 생활수준이 높은 가구에서 여성들은 더 많이 농산물을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경지면적이 넓다는 것과 생활 수준이 높다는 것은 조사된 지역내에서의 分類基準에 불과하며 경지면에서 볼 때 中農 정도에서 그나마 自家消費외에 여자들에 의해 시장에 내놓을 剩餘商品이 가능하며 그 수입 또한 가계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여자들의 農產物販賣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여기서 생긴 收入을 무엇을 위해 쓰며, 또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본조사에서는 여기서 생기는 수입의 使用方

表 16 경지규모별 농산물 판매 수익금 사용 방법

單位: 명 (%)

	1,500평 이상	1,500~3,000평	3,000평 이상	합 계
꼭 남편과 의논해서 쓴다	12(25.0)	38(43.2)	50(49.0)	100(42.0)
남편에게 알려주기만 하고 쓰기는 부인 자유로 한다	14(29.2)	25(28.4)	34(33.3)	73(30.7)
부인이 자유롭게 쓴다	20(14.7)	23(26.1)	13(12.7)	56(23.5)
기타(서어머니)	2 (4.2)	2 (2.3)	5 (4.9)	9 (3.8)
합 계	48(100.0)	88(100.0)	102 (99.9)	238(100.0)

法을 꼭 남편과 의논해서 쓰는지, 남편에게 알려주기만 하고 쓰기는 부인 자유로 하는지, 또는 완전히 부인이 자유롭게 쓰는지 조사하였다. 이 질문은 농촌 여성의 가정내에서의 經濟權의 일면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570명 중에서 판경험이 있는 238명만을 상대로 물은 결과 <표 16> 42.0%는 꼭 남편과 의논해서 쓴다고 대답하고 있었다. 남편에게는 알려만 주고 부인이 자유로이 쓰는 비율은 30.7%, 그리고 부인이 완전히 자유로 쓴다는 응답은 23.5%이다. 결국 둘째와 세째를 합할 경우, 즉 부인이 자유로 쓴다는 대답은 54.2%가 된다. 이를 경작지 규모와 관련시켜 볼 때는 경작지의 규모가 커질수록 꼭 남편과 의논해서 農產物 販賣金을 사용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반대로 부인이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비율은 경작지가 클수록 낮아진다. 그렇다면 경작지가 큰 가구일수록 부인의 經濟權과 消費權이 약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보다는 경작지가 큰 가구일수록 판매량이 많고 販賣收入額이 많기 때문에 이의 사용을 부인 혼자서 결정하지 않고 남편과 의논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추측을 낳는다. 그 역으로 零細小農의 여성들은 판매할 수 있는 양 자체가 적을 것이므로 그 收入額도 적을 것이고 따라서 소액의 판매수익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6. 農事의 計劃과 女性

농촌여성이 자기 농사의 營農計劃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를 알아보는 일은 흥미롭다. 일년 농사를 계획한다거나 농사철에 매일의 작업을 수행할 때 주로 남편 혼자서 정해서 하는가? 혹은 夫婦가 같이 의논하고 결정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농촌여성이 농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혹은 영농계획에서 소외되는지를 알아 볼 수 있다.

일년 農事計劃을 주로 누가 결정하는가 하고 물었을 때 <표 17> 남편 혼자 한다는 가구는 51.6%에 해당된다. 부인 혼자 결정한다는 경우는 11.5%로서 대개 남편이 없는 가구들이었고, 남편과 부인 둘이서 같이 결정한다는 비율은 27.9%이다. 시부모가 계셔서 그들이 정한다고 대답한 경우는 기타 가족에 포함시켰고 이 대답도 8.9%이다. 한편 농사철에 매일의 작업을 결정하는 일은 부부가 같이 정하는 비율이 32.5%로서 조금 전의 일년 농사를 부부가 같이 정한다는 비율보다는 약간 높았다 <표 18>. 그러나 여전히 매일의 작업도 남편 혼자서 정하는 비율이 43.9로서 가장 높다.

7. 農業에 대한 態度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이 농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남녀 품삯의 차이에 대해서

表 17 일년 농사 계획은 주로 누가 결정하는가*

單位: 명 (%)

	여 주	연 기	남 원	고 령	평 창	합 계
남편 혼자	58 (56.8)	65 (52.4)	40 (38.1)	56 (57.6)	53 (53.5)	273 (51.6)
부인 혼자	10 (9.8)	14 (11.3)	18 (17.1)	10 (10.1)	9 (9.1)	61 (11.5)
둘이 같이	27 (26.5)	32 (25.8)	34 (32.3)	24 (24.2)	31 (33.3)	148 (27.9)
기타 가족	7 (6.9)	13 (10.5)	13 (12.4)	8 (8.1)	6 (6.1)	47 (8.9)
합 계	102 (100.0)	124 (100.0)	105 (99.9)	99 (100.0)	99 (100.0)	529 (99.9)

*경작하지 않는 41가구는 제외하였다.

表 18 농사철에 매일의 작업은 주로 누가 결정하나*

單位: 명 (%)

	여 주	연 기	남 원	고 령	평 창	합 계
남편 혼자	42 (41.2)	61 (49.2)	34 (32.4)	50 (50.5)	45 (45.5)	232 (43.9)
부인 혼자	15 (14.7)	13 (10.5)	20 (19.0)	13 (13.1)	13 (13.1)	74 (14.0)
둘이 같이	35 (34.3)	37 (29.8)	36 (34.3)	27 (27.3)	37 (37.4)	172 (32.5)
기타 가족	10 (9.8)	13 (10.5)	15 (14.3)	9 (9.1)	4 (4.0)	51 (9.6)
합 계	102 (100.0)	139 (100.0)	105 (100.0)	99 (100.0)	99 (100.0)	529 (100.0)

*경작하지 않는 41가구는 제외하였다.

表 19 농사짓고 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경지 규모별)

單位: 명 (%)

	1,500평 미만	1,500~3,000평	3,000평 이상	합 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32 (20.6)	51 (26.3)	51 (28.0)	134 (25.3)
어쩔 수 없이 농사짓는다	113 (73.9)	128 (66.0)	121 (66.5)	362 (68.4)
기 타	4 (2.6)	11 (5.7)	10 (5.5)	25 (4.7)
무 응 답	4 (2.6)	4 (2.0)	—	8 (1.5)
합 계	153 (100.0)	194 (100.0)	182 (100.0)	529 (100.0)

*경작하지 않는 가구(41명)는 제외하였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農協의 주인으로서의 意識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해 보려고 한다. 응답자들은 농사짓고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25.3%) 보다는 어쩔 수 없이 농사짓고 산다(68.4%)는 응답을 하고 있다(표 19). 그들이 職業으로서의 農業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대답은 1/4에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경지 면적이 적을수록 어쩔 수 없이 농사짓고 산다는 응답 비율이 조금 더 높다. 경지면적이 작은 가구일수록 생활 정도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들의 직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불만도도 높은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農協의 주인은 누구라고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서는 응답자들의 농협에 대한 認識 정도가 얼마나 낮은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農協의 주인이 農民이라고 대답한 부인은 겨우 26.0%에 지나지 않으며, 23.3%는 농협을 農協任職員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5.3%는 政府나 郡廳의 농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45.4%는 아예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대답하고 있다. 응답자의 연령이나 학력과 관련지어 보면 연령이 젊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농협을 농민의 것으로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 반대로 응답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농협을 농협 임직원의 것으로

表 20 農業의 주인은 누구인가(교육 정도별)

單位: 명 (%)

	무 학	국 민 학 교	중 학 교	합 계
정 협 임 직 부	12 (4.9)	14 (5.0)	4 (8.7)	30
농 협 임 직 원	66 (26.9)	63 (22.6)	4 (8.7)	133
농 모 봉 다	28 (11.4)	93 (33.3)	27 (8.7)	148
	139 (56.7)	109 (39.1)	11 (3.9)	257
합 계	245 (100.0)	279 (100.0)	46 (100.0)	570

表 21 남자 품삯이 여자 품삯보다 많은 것에 대한 생각

單位: %

	여 주	연 기	남 원	고 경	평 창	전체 (응답자수)
남녀 품삯이 같다	0.9	30.9	79.2	1.0	0.0	22.6 (129)
남녀 품삯이 다르다	98.2	62.6	18.9	92.3	93.7	72.8 (415)
당연하다	69.7	52.5	17.0	84.6	66.1	57.7 (329)
매우 불공평하다	9.2	3.6	0.9	3.8	8.0	5.1 (29)
약간 불교평하지만 어쩔 수 없다	14.7	3.6	0.9	3.8	19.6	8.4 (48)
기 타	4.6	2.9	0.0	0.0	0.0	1.6 (9)
무 응답	0.9	6.5	1.9	6.7	6.3	4.6 (26)
합 계 (응답자수)	100.0 (109)	100.0 (139)	100.0 (106)	100.0 (104)	100.0 (112)	100.0 (570)

로 생각하나 또는 아예 모른다고 대답하는 비율이 높았다(表 20)。

우리 나라 농촌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같은 시간 하면서도 남녀가 받는 품삯이 다른 것이 대부분의 실정이다. 남녀 품삯의 차이는 우선 현금으로 지불하는 액수에서 다르며, 남자는 여자보다 액수가 높다. 그 외에도 식사대접, 술, 딤배 제공 등의 여러 면에서 여자와 남자 사이에 차별을 두고 있다. 이번 조사 중에는 이 부락에서 “이 마을에서는 남자와 여자들이 같은 일을 할 때 (새마을 취로사업, 모심기 등) 품삯이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장암리, 신촌리, 하거리와 종부리에서는 거의 모든 응답자가 남녀 품삯이 다르다고 응답하고 있다. 연기군 양화리의 응답자 중에는 30.9%가 남녀 품삯이 같다고 대답하고 있었고, 남원군의 입동부락 응답자 중에서는 72.9%가 남녀 품삯이 같다고 대답했다. 조사자가 현지에서 확인한 바로는 연기군 양화리나 남원군 입동 부락에서도 실

제로는 남녀 품삯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다.

또한 똑같은 일을 하기도 남자 품삯이 많다면 이 점을 당연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품삯이 다르다고 응답한 부인 중 대부분이 당연하다고 보거나 혹은 약간 불교평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 대답을 하고 있다. 매우 불교평하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별로 없다.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남녀 품삯이 다른 것을 당연하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조사에서 이 이유를 물어 본 결과 남자는 기운이 세고 힘 있고 일을 잘하고, 일하는 양도 많으며, 능률적으로 일을 해내고, 여자와는 하는 일이 다르다는 점 등을 응답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극히 일부 응답자는 남자는 가장이니까 혹은 한국 실정이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결국 응답자들의 이와 같은 답변을 검토해 볼 때 農村女性들은 농사에 있어서의 남자의 優秀性을 지적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실

제로 현재의 農業生產에서 機械나 道具보다는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실정하에서 여성들이 체력에 있어서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느낀 결과일 것이다. 또한 비닐 하우스 설치 등 現代農業에서 요구되는 시설을 만든다든지 특수한 農法을 익힌다든지 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여성들의 農業技術教育이 부진한데서 이와 같이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態度는 농사를 잘 짓기 위해 농촌 여성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農事方法이나 農事技術을 지적하도록 했을 때 더 자세히 드러난다.

여성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농사 기술이나 방법의 폭은 매우 넓었다. 우선 여성들은 特殊作物을 재배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대답했다. 즉 토마토, 수박, 고추, 꽃 등의 栽培法을 알고 싶어 한다. 또 하나의 커다란 희망으로 기계류 사용 등에 관심이 높다. 즉 경운기나 다른 기계류의 사용법 알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병충해 예방법, 좋은 품종 재배법, 농약 사용법, 과수 원예법, 온상법, 모판 기르는 법, 다수화 고추 재배법, 힘 덜들이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법 등 그 희망하는 폭이 다양하다. 그러나 극히 소수이긴 했으나 農業技術을 익히고 싶지 않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V. 要約 및 結論

이러한 調査結果는 여성의 農業參與 증가 자체가 곧바로 農家經濟向上이나 女性地位 向上을 가져올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여성의 농업생산 참여가 農家所得에 긍정적 變數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農業政策내지 農業構造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을 암시해 주고 있다. 農產物 價格政策이 크게 제고되어 농업생산이 경제

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한다. 물론 효율적인 農業生產이 되기 위해 서는 각 가구별로 하고 있는 소규모의 개별적 영농방법을 부분적으로라도 지양하는 농업구조 개선의 새로운 시도가 요청된다 하겠다. 이와 동시에 농업생산의 專門性이 강조되어 잡다한 品種의 농산물 생산에서 나타나는 非能率과 특히 여성의 過度勞動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농업생산의 專門化 노력은 농촌의 남녀 노동력의 전문적 技術教育을 요구할 것이다. 필자는 1975년 「韓國女性의 地位」에서 바로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었다. 『農村女性들을 위해서는 勞動負擔을 덜어 주는 農業機械化, 합리적인 농업기술 그리고 協業의 방법 등이 앞으로 더욱 널리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탁아소 시설, 消費生活을 위한 協同組織 및 기타 서비스 시설의 보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의 발전을 위해 농촌 여성들을 위한 통합된 教育·技術訓練 센터의 설치가 요구된다. 지금껏 농업 교육이 남자들만을 상대로 하였으며 여자들을 농업 노동의 補助者로서 교육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여성들이 농업 생산에 주된 노동력으로 참여하는데 비해 농촌 여성들을 위한 교육은 아직도 家事에 관련된 生活改善을 위한 것이다.』

農業發展과 農村의 現代化는 가정적 역할을 위시하여 生산·소비의 경제적 역할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市民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관한 종합적 교육과 훈련을 뒷받침으로 한 여성들의 적극적 참여로서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될 때 農家의 여성 지위 변화의 징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즉 技術教育을 받은 농가 여성들이 補助勞動力이 아닌 農業專門家로서 생산에 참여하게 되고, 농사의 계획내지

진행 과정에서 여성의 적극 참여하게 되고 共同企劃, 共同管理者로서의 역할을 통해 농업생산을 증진시키고, 농민을 위한 農業政策에 의해 이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農家 및 農家女性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향상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金大煥, 「農村女性勞動力의 實態 및 利用에 관한 研究」, 梨大 農村問題研究所, 1971
 金炳台, 「韓國農業의 發展理論」, 서울 : 對話出版社, 1979.
 金周淑, 「韓國農村女性」, 「女性學」, 梨花女大出版部, 1979.
 金周淑, 「韓國農村女性研究—5個 部落 實態調查量 中心으로」, 가톨릭 農村女性會, 1981.
 金周淑, 「農村女性問題小考」, 「韓國社會學」, 1981.
 農村振興廳, 「農家主婦의 生活時間分析」, 1966.
 朴根昌, 「農業經濟學」, 서울, 一潮閣, 1980.

- 邊衡尹外 7人, 「韓國農業問題의 認識」, 서울 : 도서출판물결, 1977.
 李廣遠, 農村勞動力의 老齡化 婦女化에 따른 農村 보건의료의 現況과 問題點, 「農村經濟」, 韓國農촌경제연구원, 1979.
 李效再, 金周淑, 「韓國女性의 地位」, 梨花女大 出版部, 1976.
 李效再, 金周淑, “農村地域社會發展을 위한 女性의 役割,” 「梨大 韓國文化研究院 論叢」, 제30집, 1977.
 李效再, 趙馨, “女性經濟活動 및 就業에 관한 研究 : 1960~1970년의 推移,” 「梨大 韓國文化研究院 論叢」, 제27집, 1976.
 梨花女子大學校 韓國女性研究所, 「새로운 農村女性」, 梨花女大 出版部, 1978.
 전령, “農村婦女의 農業經營參與에 관한 研究”, 서울대.
 金東熙외, 「轉換期의 韓國農業」,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79.
 丸岡秀子, 大島清編, 「農村婦人」, 東京 : 亞紀書房, 1971.
 Boserup, Ester, *Woman's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St. Martins Press, 1970.